

# “불상, 당시 구성일뿐 절대 모습 아니다”

## 화쟁아카데미 · 시민행성

조성택 교수(고려대)

- 1강 '사키야무니 붓다 등장의 역사적 배경'
- 2강 **역사적 붓다의 재구성**
- 3강 붓다 출현 그리고 '불교'의 문명사적 의의 귀환과 출가
- 4강 근대 유럽이 바라본 '붓다': 부처님은 '영국신사인' 가 '맑시스트' 인가?
- 5강 신앙으로서의 부처님: 부처님은 '경쟁' 중
- 6강 우리 시대의 '붓다' 그리고 '부처님'

화쟁아카데미에서 기획한 불교인문강좌 두 번째 시간은 '역사적 붓다'에 관한 내용이었다. 조성택 교수는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 가진 이미지란 지역과 시대별로 달리 조성된 당시의 기억일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특정화된 절대적 관념에서 벗어나기를 주문했다. 동시에 출가, 성도, 전법, 열반으로 나뉘는 부처의 삶에 대한 강약을 해제함으로써 불교에 대한 풍부한 해석을 시도했다. **정리=배현진 기자**

### 붓다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필요

역사적 붓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 역사적 실재에 입각해서 재구성하려는 접근입니다. 이를 이야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이오그래피, 전기에 해당하는 사료적 삶입니다. 반면 헤기오그래피(hagiography)는 위대한 분의 삶을 칭송하기 위해 신화적 전설적 요소를 가미해 종교적 의미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처님의 이야기들은 헤기오그래피에 속합니다.

부처님이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나서 일곱걸음을 걸은 후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고.

역사적 붓다를 구성하기 위해 기록을 들여다보지만 불교 기록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도는 불교가 등장하면서 역사적 기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을 정도로 역사적 기록에 무관심했기 때문이죠.

불교에 대한 기록은 대개 역사이론일시 불재(如是我聞一時佛在)라고 시작합니다. 뒤이어 장소는 정확히 나오는데 언제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부처님 성도하신지 3년째 되던 여름' 정도만 되어있어도 불교 연대기를 쉽게 구성할 수 있음에도 모든 것이 한때라고 통용됩니다. 때문에 부처님께서 35살에 성도하셨다면 40대와 70대에 설법하신 얘기가 다를 법도 한데 그런 시간의 변화를 불교경전에서는 찾을 수가 없죠. 아마 문화적 세계관 속에서 시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듯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삶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9세기까지 부처님이 실재했던 인물인지 아니면 신으로 존재했는지에 관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다가 아쇼카 왕의 비문이 해석되면서 부처님을 역사적으로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정각 아닌 고행포기...부처님 위대한 이유  
여러분이 부처님 삶을 기억하는 데는 몇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출가, 성도, 전법, 열반 등이 그것이지요. 언제부터 이렇게 구성해왔을까요. 이같은 분류는 부처님 열반 후 2,300년이 지나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생존 당시 자신의 의지대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자유사상이 그를 사용문이라 했는데 그들이 주로 추구하는 것은 고행과 명상이었습니다. 부처님 역시 명상하기 시작하며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수가 없었죠. 명상에서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출가를 하고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루신 순간을 위대한 순간이라고 꼽지만 제 생각에는 고행을 그만둔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고행을 그만뒀다는 것은 부처님 입장에서 이 세상에 남은길이 하나도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황지우 시인의 '나는 너다' 라는 시에는 '길은, 가면 뒤에 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막의 여행자처럼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란 길이라 이름붙일 수 없습니다. 길 자체가 없는 것이니까요. 살아온 길은 있지만 앞으로의 길은 없는 거죠.

부처님은 고행의 중도가 아니라 나에게 남겨진 것이 없다는 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백척간두진일보'라는 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을 얻는 것은 내가 딛고 있는 기반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고행을 그만둘 수 있었던 것은, 고행의 극점까지 가봤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맞나 고민하는 것은 끝까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도를 깨달았다 하는 것은 새로운 제 3의 길,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길을 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앞에 누군가 걸 어간 길을 가기 마련입니다. 삶의 형태가 다양하다고 하지만 모범적 롤모델의 삶을 흉내내며 가는 것이 대개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존재하지 않는 길을 택했죠. 그리고 가장 위대해졌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으신 후 다섯 제자에게 사성제가 아닌 팔정도를 전합니다. 팔정도는 깨달음이란 목표하에 순차적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8개의 중첩된 길입니다. 팔품(品)이라고도 하죠. 정견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정삼매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들이 한자리에서 이뤄지는 거예요.

팔정도는 부처에 이르는 길이면서 부처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현재 부처로 살지 않으면 부처가 못 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어 부처님은 60명의 제자가 생겼을 때 전도를 선언합니다. 법을 설하는 유일한 목적은 많은 사람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불교의 시작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순간이죠. 불교의 시작은 부처님이 정각을 이룩할 때가 아니라 법을 전하려 떠나라고 말하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각을 이룬 순간은 오로지 부처님 개인의 깨달음에 머물 뿐이기 때문이죠.

불교 이전의 종교는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공자, 부처님은 자신이 생각했던 율음을 대중과 공유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불교가 도인 불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비판받을 여지가 있죠.

길에서 살다 길에서 돌아가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께서 앉아있던 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런 면에서 서 있는 부처님을 상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죄다 앉아있는 부처님만을 보게 되니까요.

### 우리시대의 부처 모습은

부처님을 기억하는 방식으로서 인문학적 관점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기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술(art)로서의 기억과 활력으로서의 기억입니다. 먼저 기술로서의 기억은 있는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기억입니다. 구구단을 정확히 기억해 끄집어내는 저장기억으로, 들어간 것과 나오는



조성택 교수는... 1957년 부산에서 출생했다.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 대학원에서 인도철학을 전공했으며, U.C 버클리에서 인도 초기 대승불교의 성립에 관한 연구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스토니부룩 뉴욕주립대학 비교종교학과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2002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계간 <불교평론>,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인문학 단장,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철학회 편집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4년 불이상(학술 부문), 2011년 불교평론 '올해의 논문상'을 수상했다.

### “ 불상은 당시 부처에 대한 기억 특정화된 붓다 모습을 부처 육성처럼 생각해서 곤란 ”

것이 동일합니다. 반면 활력으로서의 기억은 시간이 살아있는 기억입니다. 회상시점에 따라 기억이 다 달라지는 거죠. 대승불교는 저장기억으로가 아니라 활력기억으로 부처님을 기억합니다. 염불은 부처님을 생각하고 끄집어내기 위한 것으로 찬링은 부처님을 생각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과거 부처님을 똑같이 기억하는게 아니라 내 마음 속 부처님을 달리 끄집어냅니다. 매년 새롭게 창출되는 부처죠. 대승 불교는 수행적 측면에서 기억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불상을 제작한 이유도 수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각적으로 관하는 거죠. 부처님의 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며 새롭게 떠올리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부처님에 대한 기억이 왜곡되고 치환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다. 그러나 과거 부처님을 단 하나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활성화된 부처님이 어떤 모습일지는 시대마다 다릅니다. 특정화된 부처님을 유지하는 것은 교조적입니다. 과연 그 모습은 누구의 기억입니까. 아쇼카왕입니까. 라홀라입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사람마다 전혀 달리 말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저장기억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특정화된 모습을 고집함으로써 마치 부처님 육성 테이프를 듣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불상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부처님 열반 후 500년이 지나서입니다. 그전까지는 부처님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대신 발을 묘사합니다. 여기가 부처님 있을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인도에서 불상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 영향을 받고나서 부터입니다. 부처님이 그리스 청년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그 영향이죠.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와 문명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륵불 역시 서양 귀족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파골이 삼정한 모습에서 종교인의 모습을 볼 수 있기에 몇몇 나라에서는 고행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동아시아

에서는 고행상을 제작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후덕한 모습이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 가진 기억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보는 부처님이란 절대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구성된 부처님일 뿐이죠. 불상을 분다는 것은 그 시대 기억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태국에서 볼 수 있는 불상은 우리나라에서 조성된 부처님보다는 젊은 얼굴이죠. 부처님에 대한 인류의 기억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부처님을 전승하고 있는 걸까요.

동시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열반하신 실제 인물로서의 부처님, 진리로서의 부처님, 선사들이 강조한 깨달음으로서의 부처님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부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의 부처님은 지금의 문화를 담아내 새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 (알립니다)

조성택 교수의 '불교인문학' 연재는 강좌 휴강과 편집 사정이 겹쳐 2주간 쉬고, 998호에 다시 게재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헤맬 바랍니다.

##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마이크에서 소리를 직접 조절하는 주지스님 전용 고성능 구즈넥마이크를 먼저 사용 해 보신 후 구입하십시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츠  
전국일괄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와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세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 헤드셋 1세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 1대

● 법당전용 스피커  
자제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내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마이크

●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 전통식품교육사

**전통식품교육사란?** 국가에서 인정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전통식품원을 개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전통식품교육론(전통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과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전통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 부 교 육 원**

제 기 동 02-966-0020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